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비교 — 예레미야서 해설을 중심으로 —

차준희*

1. 들어가는 말

그동안 대한성서공회는 두 종류의 성경 해설판을 한국교회에 내놓았다. 하나는 1997년에 출간한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과 2005년에 출간한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다. 또 하나는 2001년에 출간된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이다. 전자는 독일성서공회가 1992년에 내놓은 해설 성경(*Stuttgarter Erklärungs-bibel: Lutherbibel Erklärungen*, 1992년 제2판)의 해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개역한글』과 『개역개정』에 각각 덧붙인 것이다. 후자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1997년에 집필한 해설 성경(*Good News Study Bible*, 1997년판)의 해설을 번역하여 『개역개정』에 덧붙인 것이다.¹⁾

이 두 권의 성경 해설판은 한국교회 해설 성경의 역사와 생태계에 획을 그은 사건이 되었다. 이전까지 한국교회에서 유통된 거의 모든 해설 성경은 저자나 집필자의 이름이 명확히 실려 있지 않거나, 외국의 저명한 해설 성경의 번역이라지만 그나마 제대로 된 번역도 아니었고, 저명한 편집자의

* 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jhchaot@hanmail.net.

1) 이 두 가지 해설 성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41-55;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56-68.

이름이 실명으로 버젓이 등장하는 경우도, 허명일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내용도 출판업자들의 출처 불명의 짜깁기의 결과로 보였다.²⁾ 불량 식품처럼 만들어진 수많은 성경 해설들의 폐해와 또 그것들이 분별없이 우후죽순 출판되어 온 후진적 풍토를 일신한 것이 대한성서공회의 두 권의 해설 성경의 등장이었다. 기존의 비전문가의 불량한 해설 성경을 모두 몰아내고 국제적인 전문가의 양질의 해설 성경으로 대체된 것이다.³⁾ 이를 통해 한국교회도 세계적인 성서해설을 접하고 소통하는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이 두 권의 해설 성경은 기존에 한국교회에 소개된 대부분의 해설 성경의 수준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점이 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역사비평적 결과를 활용하여 성경의 이해를 깊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왕대일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중요한 것은 『해설·관주 성경』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해설문이 나 안내문이 역사비평적 성서해석을 비롯한 성서해석의 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출판된 개신교용 해설 성서들이 대부분 역사비평적 성서해석에 반감을 표시하는 문자주의적 해석의 경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세계 성서학계가 지적 유산으로 남겨 놓은 성서해석의 방법론을 창조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성서 읽기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는 사실이다.⁴⁾

동일한 주제를 연구한 신약학자 김창락의 연구 결과도 이와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해성』(『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의 준말, 필자 주)과 『스바』(『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의 준말, 필자 주)가 신구약성서의 각 문서에 대하여 개론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참으로 소중하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역사비평적 연구의 공통적 결과를 수용하여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합치한다. 이 둘에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해설 성서가 성서의 각 문서에 대하여 제시한 정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

2)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42.

3) 기존의 우리말 해설 성서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신랄하게 일침을 가하는 논문으로 다음을 추천한다.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2001), 7-40.

4)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52.

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현재 형태의 모세 오경을 형성한 배후에 이른바 J, E, D, P라고 하는 자료층이 존재했다는 것, 현재 형태의 이사야서는 약 400년에 걸쳐서 쌓인 여러 전승층들의 편집으로 형성되었다는 것, 공관복음서의 성립에 대하여 이른바 두 자료설을 인정하는 것, 바울의 서신을 진정 서신과 후기 바울 서신으로 구분하는 것 등등이다.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적 연구의 불모지대인 우리나라의 성서 연구의 풍토에 이 두 해설 성서가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⁵⁾

이제 대한성서공회는 한국교회의 성경 이해를 위해서 2021년 또 하나의 큰일을 해낸다.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우리말로 번역 및 번안하여 내놓은 것이다. 스위스 취리히 개혁교회(Evangelisch-reformierte Landeskirche des Kantons Zürich)는 2007년에 <취리히성경>(Zürcher Bibel) 개정판을 출판하였다. 이어서 <뜻풀이 - 취리히성경 해설>(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초판 2010; 제2-3권 제2판 2011)도 출간하였다. 이 해설 부분을 우리나라 성서학자들이 나누어서 번역하고 대한성서공회가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출간하게 된 것이다.⁶⁾

이 글은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하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하 『취리히해설』)을 ‘예레미야서 해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2. 형식적 차이

2.1. 안내 부분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취리히해설』간의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형식적 측면이다. 특히 안내 부분이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의 안내 부분은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와 역사적 배경, 예레미야 메시지의 신학적 특징, 그의 출신지와 출신 가문, 그리고 소명과 독신의 삶, 다른 예언자에 비해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표출된 예레미야의 내면의 갈등 묘사와 새 언약, 예레미야서의 세 부분(렘 1-25장; 26-45장; 46-52장)⁷⁾, 첫 부분에 있는

5)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67.

6)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박동현, 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Konrad Schmid and Matthias Krieg, ed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1), 『성경원문연구』 40 (2017), 265-291.

7)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안내의 “세 부분”이라는 언급과는 다르게, 실제 본문의 해설에

설교 형식의 본문,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서의 후대 영향에 대하여 서술체로, 한 페이지의 사분의 일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취리히해설』은 책 이름, 쓴 때, 생겨난 곳, 쓴 사람, 문학 형식, 통일성, 정보의 가치, 중심 낱말, 신학, 활용, 영향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도식화하여 요점만 적시하였다. 이어서 예레미야서 전체가 말, 격언 및 연설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 성서의 대부분의 모티브(창조 모티브에서 먼 앞날에 대한 희망 모티브)가 등장한다는 사실, 그리고 세계 역사의 차원에서부터 고난받는 사람의 깊은 속마음까지 묘사된 사실을 특징적인 것으로 드러낸다. 또한 예레미야서를 네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렘 1-25장; 26-45장; 46-51장; 52장). 안내 부분은 한 페이지 분량으로, 도식과 서술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2.2. 단락 구분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취리히해설』 사이에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차이는 단락 구분이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각 장을 몇 가지 소 단락으로 나누어서 해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취리히해설』은 상대적으로 큰 단락으로 묶어서 해설을 한다. 예를 들어,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의 예레미야 1장은 1-3절, 4-8절, 9-10절, 11-12절, 13-16절, 17-19절로 여섯으로 구분하여 세분한 반면, 『취리히해설』의 1장은 1-3절, 4-19절로 둘로 구분되어 있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의 예레미야 2장은 1-3절, 4-9절, 10-13절, 14-19절, 20-22절, 23-25절, 26-28절, 29-30절, 31-37절로 아홉으로 구분되어 있다. 『취리히해설』은 한 장 전체를 통으로 해설하고 있다.

해설의 단락 구분에서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각각의 나무를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취리히해설』은 전체 숲을 제시한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미시적 단락을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각각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전체 그림을 시야에서 잃어버리기 쉽다는 약점도 있다. 『취리히해설』은 이 점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된다. 『취리히해설』은 단락을 미시적으로 나누지 않고, 크게 나눔으로써 거시적으로 접근하여 전체 그림을 제시하고, 각각의 단락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서는 1-25장, 26-45장, 46-51장, 52장이라는 ‘네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2.3. 전체적인 개요 제시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취리히해설』의 형식적인 면에서 감지되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전체적인 기술보다는 미세한 소단락의 내용에 집중하는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는 다르게, 『취리히해설』은 전체적인 개요를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취리히해설』이 전체 그림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적어도 다음의 두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예레미야 26장에 대한 해설 부분은 26-36장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개요로 시작한다. 『취리히해설』은 이 부분의 저자를 서기관 바룩으로 명시하고, 이 부분은 바룩의 기록이 나중에 덧붙여지고, 다듬어지고, 길어진 것임을 주장한다. 또한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26-29장의 전체 주제는 거짓 예언자들과의 논쟁이고, 30-32장의 주제는 앞날의 희망에 대한 문제이며, 33-35장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 몇 년 동안 일어난 치명적인 사건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취리히해설』은 이 본문들의 공통점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다는 사실과 두루마리 책(렘 30-31장; 36장)이나 편지(렘 29장)처럼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⁸⁾

둘째, 예레미야 37장의 해설 부분은 37-45장에 대하여 한 편의 논문과도 같이 논증하며 기술하고 있다.

이 본문은 ‘바룩의 보도’ 또는 ‘예레미야의 전기’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전기’라는 개념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묘사된 사건들이 예언자의 삶 가운데 기껏해야 2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이다. …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비서인,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본문을 썼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매우 있을 법한 일이다. …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5가지 좋은 근거가 있다. 첫째, 예루살렘 마지막 해에 이 성읍과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던 사건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다(이름들, 칭호들, 정확한 장소 이름들, 진술들, 행동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던 예언자에게 접근할 수 있던(32:12) 목격자이며 그와 매우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 둘째, 본문은 개인의 관심에서 기록되었다. 아주 가까운 사람과 친구 말고 누가 그 어수선한 시대에 예언자의 고난에 대해 기록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 한 예언자의 수난을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위대한 작품이다. 이 본문은 이상적인 인물을 그려 낸다. 이런 인물 묘사에는 <사무엘상하>에 있는 다윗에 관한 보고만이 비교될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윗과

8)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1134-1135.

함께 구약성서에서 가장 세밀하게 내면의 삶이 묘사된 사람으로 만든다.9)

3. 내용적 차이

3.1. 역사적 배경의 추가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취리히해설』의 내용적 차이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취리히해설』에서 추가된 내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첫째, 『취리히해설』은 예레미야 7:1-15의 해설에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기원전 609년에 실행되었음을 명시한다.¹⁰⁾ 그러나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이 설교의 배경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던 연중 삼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선에서 멈춘다.¹¹⁾

둘째, 예레미야 13장의 상징 행위에 관한 이야기에서, 『취리히해설』은 이 상징 행위가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었을 때인 기원전 609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해석한다.¹²⁾ 『취리히해설』은 기원전 609년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한 해로 본다.

[예레미야] 26장 처음에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인 기원전 609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을 알린다(1절). 이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활동하기 시작한 때이다.¹³⁾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예레미야 13장과 26장의 해설에서 이 본문의 역사적 연대와 배경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셋째, 예레미야 21:11-23:8의 소위 ‘왕에 관한 예언들’에서 『취리히해설』은 유다 왕들의 출생 연도와 활동 연대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여호아하스(살룸)은 요시야의 아들로 기원전 632년 출생했고, 609년에 임금이 되어 이집트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3개월 동안 통치했다. 여호야김(엘리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 기원전 634년 출생했고, 609-597년까지 다스렸다. 여호야긴(고니아)은 여호야김의 아들로 기원전 616년 출생해서, 18세에 임

9) Ibid., 1154.

10) Ibid., 1102.

11)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13), 1058.

12)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12.

13) Ibid., 1135.

금이 되었고, 3개월 동안 왕 노릇했음(기원전 598-597년)을 적시하고 있다.¹⁴⁾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이러한 유다 왕들의 출생 연도와 활동 연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넷째, 예레미야 29장의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로 사로잡혀 간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취리히해설』은 이 편지 교환이 기원전 594년의 일이었다고 말하고,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정확한 연대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다섯째, 예레미야 30:1-31:40의 ‘에브라임을 위한 위로의 책’에서 『취리히해설』은 이 부분이 예레미야가 예언자 활동을 시작하던 때인 기원전 609년 이전의 것으로 자리매김한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이 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취리히해설』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이 부분이 최근에야 비로소 학문적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독일성서공회판해설』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여섯째, 예레미야 33:1-6은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이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며,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에 관한 내용이다. 『취리히해설』은 이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아나돗에서의 발을 사라는 명령(렘 32:6-15)보다 나중에 임했을 것으로 보고,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주어진 것으로 해석한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예레미야 32:1-2의 상황과 연계하여 참조할 것을 권한다.

일곱째, 예레미야 39:1-18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알려 준다. 『취리히해설』은 예루살렘의 포위 기간에 대하여 적시해 준다.

가장 믿을 만한 연대기에 따르면 기원전 589년 12월 또는 기원전 588년 1월부터 6개월에서 8개월에 걸쳐 예루살렘이 포위된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은 시드기야 통치 11년 4월 9일로 기록된다.¹⁶⁾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예루살렘이 기원전 587년 8월에 함락되었다고 간단히 언급한다.¹⁷⁾

여덟째, 예레미야 46-51장은 “이방민족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단락이다. 예레미야 46:2는 당시 두 강대국인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사

14) Ibid., 1126-1127.

15) Ibid., 1143.

16) Ibid., 1159.

17)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11-1112.

이에서 벌어진 갈그미스 전투를 언급한다. 『취리히해설』과 『독일성서공회판해설』 모두 이 전투가 기원전 605년에 발생한 사건임을 언급한다. 그런데 『취리히해설』은 기원전 605년 초여름이라고 계절까지 명시하고,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기원전 605년을 언급하는 선에서 멈춘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바로 느고가 느부갓네살에 대항하는 아시리아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갈그미스 전투의 참전 의도를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취리히해설』은 이 점을 지나치고 있지만, “초여름”이라고 구체적으로 계절을 언급하고 있는 점은 『취리히해설』이 역사적인 배경에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3.2. 지리학적이고 고고학적인 배경 추가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취리히해설』의 또 다른 차이점은 『취리히해설』의 해설 부분에서 지리학적이고 고고학적인 배경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팔레스타인 지리학과 고고학 연구의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고, 『취리히해설』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레미야 1:1-3은 예레미야의 인적 배경과 출신, 활동 연대를 기술하고 있다. 『취리히해설』은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4.5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임을 언급한다. 또한 아나돗이라는 이름이 여신의 이름인 ‘아나트’와 관련 있음도 추가하고 있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아나돗이 예루살렘 북쪽으로 5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점만 간단히 언급한다.¹⁸⁾

둘째, 예레미야 26:1-24의 해설에서도, 『취리히해설』은 기랴여아림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3킬로미터 떨어진 곳임을 적시한다. 이러한 지리적 정보도 『독일성서공회판해설』에서는 볼 수 없다.

셋째, 예레미야 28:1-11의 해설에서 『취리히해설』은 하나냐의 고향인 기브온이 아나돗에서 서쪽으로 5.5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위치함을 말한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기브온에 대한 지리적 정보는 무시하고, 기브온을 위해서는 열왕기상 3:4의 해설을 참조하라고 말한다.

넷째, 예레미야 34:1-7은 예루살렘 함락을 앞둔 상태에서 시드기야 임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시 바빌로니아와 그의 지배 아래 있는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다.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유다 지역인

18) Ibid., 1046.

라기스와 아세가만 아직 함락되지 않았다(렘 34:7). 『취리히해설』은 이런 상황과 관련된 성서 외의 자료를 소개한다. 글씨가 적힌 항아리 조각(곧, ‘오스트라콘’)들이 라기스에서 발견되었음을 알리고, 그 가운데 한 구절을 발췌하여 준다.

주인님, 우리가 주인님의 명령에 따라 라기스의 신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세가의 연기 신호가 더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기스 제4 ‘오스트라콘’ 10-13줄)¹⁹⁾

라기스에서 발견된 이 문서는 아세가의 함락 순간과 함락을 눈앞에 둔 라기스의 긴장감 넘치는 마지막 순간을 증거하고 있다. 이는 라기스와 가까운 도시에서 근무한 군인이 라기스에 있는 상관에게 쓴 편지로, 라기스가 바빌로니아에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을 담고 있다.²⁰⁾ 이러한 고고학적 정보는 예레미야 메시지의 역사성을 뒷받침하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참조 자료가 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침묵하고 있다. 다만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라기스가 예루살렘 남남서쪽 45킬로미터 지점에, 아세가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30킬로미터 지점에 있었다.”²¹⁾라는 지리적 정보만을 제공한다.

다섯째, 예레미야 36:1-32에 대한 해설에서 『취리히해설』은 왕의 아들 여라므엘이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였다고 밝히고, 그의 ‘인장이 찍힌 자국’도 발굴되었다는 사실도 알리고 있다.²²⁾ 예레미야 본문의 역사성을 인장 자국이라는 고고학적 발굴 문서로 강화해 주고 있다. 아쉽게도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이 집필될 때는 이러한 고고학적 연구가 아직 활발하지

19)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49. 라기스 오스트라콘의 나머지 문서들은 다음의 책에서 참조할 수 있다. J. B. 프리처드 편,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 외 역, 고대 근동 시리즈 13 (서울: CLC, 2016), 565-568.

20) 김구원, 칩 하디, 『쉬운 구약 개론』 (서울: 홍성사, 2020), 204.

21)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03.

22) N. Avigad, *Corpus of West Semitic Stamp Seals* (revised and completed by B. Sass) (Jerusalem: The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Section of Humanities; Israel Exploration Society;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97), 175. 고고학에서는 인장 자국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하여 논쟁이 심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C. Uehlinger, “Spurensicherung: alte und neue Siegel und Bullen und das Problem ihrer historischen Kontextualisierung”, S. Lubs, u. a., hrsg., *Behutsames Lesen: Alttestamentliche Exegese im interdisziplinären Methodendiskurs: Christof Hardmeier zum 65. Geburtstag*, ABG 28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7), 89-137; H.-J. Stipp, *Jeremia 25-52,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I/12,2* (Tübingen: Mohr Siebeck, 2019), 449-450, 각주 24.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예레미야 39:1-18은 예루살렘 함락, 예레미야의 석방, 에벳멜렉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다룬다. 『취리히해설』은 이 부분의 해설에서도 고고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바룩의 기록은 앞 장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렘 38:28하. 감옥 뜰에 머물렀더라). 이어서 간략하게 바빌로니아의 몇몇 고관들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읍이 점령되는 동안 중문(중앙 성문)에 모여 있었다(39:3).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유대 지역 중심지에서 발굴되고 있는 성벽과 성문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진다.²³⁾

이는 예루살렘의 ‘중문’에 대한 최근의 고고학적 발굴을 언급한 내용으로 『독일성서공회판해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일곱째, 예레미야 48:1-47은 모압에 관한 말씀들의 모음집이다. 『취리히해설』은 모압의 지형이 기원전 9세기의 것인 “메사 석비”²⁴⁾에 있는 모압 비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져 있음을 언급한다.

이 석비는 1868년 디본(오늘날의 디반)에서 발견되었고, 메사 임금의 활동들에 대한 서술이 담겨 있다. 그 활동들에는 요르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 이스라엘의 여호와와 같은 신의 이름들도 있다. 예레미야는 이 지역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다.²⁵⁾

『독일성서공회판해설』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여덟째, 예레미야 51:1-64는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 예언이다. 『취리히해설』은 58절(“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의 해설에서 당시 바빌론의 성벽들은 상수도 시설들을 안전하게 해 주었고, ‘이슈타르 문’은 높이가 9미터였다고 언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성서공회판해설』도

23)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58.

24) 메사 석비는 1868년에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으나, 후에 아랍인들에 의해 파손되었다. 1873년 이래,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메사 석비의 내용은 다음의 문헌에서 만날 수 있다. J. B. 프리처드 편, 『고대 근동 문학 선집』, 558-560. 메사 석비와 성서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임미영,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고대 근동 시리즈 14 (서울: CLC, 2016), 100-102.

25)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71.

해설하고 있다.

바벨론의 성벽은 유명하였다. 두께가 약 3.5미터인 외벽과 두께가 약 6.5미터인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폭이 약 7미터인 물 없는 웅덩이가 있었다.²⁶⁾

그런데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이슈타르 성문의 높이가 약 12미터였다고 기술한다.²⁷⁾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취리히해설』 사이에 수치의 약간의 차이가 난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취리히해설』의 수치의 차이는 미스바에 대한 위치 정보에서도 발견된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13킬로미터 지점에 있다.²⁸⁾

『취리히해설』: ‘망루’라는 뜻의 미스바는 베냐민 지파 장소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8킬로미터 떨어진 언덕에 있다.²⁹⁾

아홉째, 예레미야 52:31-34는 느부갓네살(기원전 604-562년)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바빌로니아 임금 에월프로닥(기원전 562 혹은 561-560년)이 여호야킨을 감옥에서 풀어 준 내용이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이 단락에 대한 해설을 완전히 생략했다. 아마도 열왕기하 25:27-30의 해설 내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리히해설』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술한다.

더군다나 여호야킨은 사로잡혀 온 다른 나라의 임금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 그는 임금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는 날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이 허락되었다. 이는 췌기 문자로 기록된 것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³⁰⁾

사실 당시 사로잡혀 온 보잘 것 없는 작은 나라 유다의 왕이 사면되고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성서의 기록은 과연 그러한지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다. 『취리히해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26)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30.

27) Ibid., 1131.

28) Ibid., 1111.

29)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59.

30) Ibid., 1184.

기원전 592년의 썩기 문자로 된 배급 목록을 고고학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목록에 따르면, 여호야긴은 다섯 명의 아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왕실에서 살았고, 매달 음식과 기름을 공급받았다.³¹⁾ 이에 대한 클레멘츠(R. E. Clements)의 설명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31-34절에 구술되어 있는 마지막 일화는 열왕기하 25:27-30에서 직접적으로 발췌되었는데, 그것은 기원전 561년의 여호야긴의 석방을 다룬다. 그 해는 에월스로닥이 바벨론의 왕위에 오른 해인데 유다의 전왕(前王)을 석방한 그의 의도는 다양하게 해석되어져 왔다. 그것은 그의 왕위 즉위를 기리기 위하여 베푼어진 은전(恩典)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장기수에게 베푼어진 일종의 사면 조치였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신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에월스로닥의 의도였을 수도 있다. 그의 왕위는 결정적으로 취약하고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는 유명한 전왕(前王)에 관대한 복권조치를 내림으로써 안팎의 지지를 얻으려고 시도하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는 얼마 안 되어 암살당함으로써 그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명백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³²⁾

가장 최근에 예레미야서 주석서를 출간한 스티프(H.-J. Stipp)도 에월스로닥이 여호야긴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에월스로닥은 유다의 사로잡혀 온 자들과 바빌로니아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그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³³⁾

4. 그 밖의 추가 내용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의 토대가 된 <슈투트가르트 해설 성경>은 본래 1992년에 출간되었고(우리말 번역은 1997년), <취리히성경해설집>은 2010년에 출판되었다(우리말 번역은 2021년). 둘 사이에는 18년이라는 간격이 존재한다. 『취리히해설』은 대략 20년 동안의 예레미야 연구 결과를 추가하

31) H.-J. Stipp, *Jeremia 25-52*, 830-831.

32) R. E. 클레멘츠, 『예레미야』, 김희권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406.

33) H.-J. Stipp, *Jeremia 25-52*, 831.

고 있다. 이 점은 『취리히해설』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몇 가지 점에서 추가된 내용이 눈에 띈다.

첫째, 예레미야 21:1-10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인 기원전 588년의 사건을 진술한다. 유다의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는 바스홀과 스바냐를 보내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오라고 명한다. 『취리히해설』은 이 두 고관들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을 알려 준다.

바빌로니아(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바스홀과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라는 임무가 맡겨졌다. 바스홀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언급된다(38:1). 그는 왕궁 관료 곧 고관이나 ‘영주’였다(4절). 스바냐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는데(37:3), 그는 제사장으로도 언급된다(29:25. 52:24도 참고). 바스홀과 스바냐 모두 이집트 편에 있는 사람들이며, 한 사람은 임금의 세속적 조언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종교적 조언자이다.³⁴⁾

바스홀은 “영주”였고, 그와 스바냐가 당시 궁중의 고관들 가운데 ‘친이집트파’였다는 사실도 『독일성서공회판해설』에는 없는 흥미 있는 내용이다. 정치적인 면만 보았을 때, 친이집트파를 친바빌로니아적인 예레미야에게 보낸 것이다.

둘째, 예레미야 23:9-40은 ‘예언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모아 엮어 놓은 모음집이다. 『취리히해설』은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자 교육을 받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선보인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예레미야는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예언자이기도 했다. 그가 예언자들에게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언자 교육은 한편으로는 순수한 신학적 질문들을 연구하는 데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언자들에게 맡겨진 일인 앞날에 대한 예언적 풀이, 곧 꿈과 환상을 다루는 것으로 이끄는 데 있다. 이 모음집의 본문들에서는 동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생동감 있는, 하지만 위험한 논쟁 하나를 보여 준다.³⁵⁾

더 나아가 『취리히해설』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13-15절)을 ‘왕궁 예언자들’로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열왕기상 22장에 언급된 선지자 40명과 같이 왕정 중심부에서 일을 하거나 왕궁에 살았다는 것이다. 북왕

34) 『취리히해설 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24.

35) Ibid., 1129.

국 멸망의 진원지인 사마리아 선지자와 남왕국 멸망의 진원지로 지목된 예루살렘 선지자가 각각의 왕실에 속하여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였다는 주장도 새로운 내용이다.

셋째, 예레미야 26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 성전처럼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읍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성전 설교를 행한 이후의 결과를 다루고 있다. 『취리히해설』은 10-19절이 구약성경에서 “소송 진행 과정”이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본문이라고 평가하고 주장하고 있다.

고관들, 다시 말해 장관들과 왕궁의 다른 관료들은 성전산에서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들었다. 그들은 궁전 뜰과 성전 뜰 사이에 있는 성문으로 갔다. 성문은 예부터 재판이 열리던 장소였다. 이어서 소송 진행 과정이 구약성서에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다(10-19절).³⁶⁾

『독일성서공회판해설』도 예레미야 26:10-19가 소송과 관련된 본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자기를 변호하려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한다. ... 예레미야가 말을 끝내자, 재판관(유다의 고관, 10절)들은 무죄 판결을 내린다. 처음에는 제사장들 쪽에 섰던 군중(8절)이 태도를 바꾸어 재판관들이 판결이 옳다고 한다(16절). 장로들은 아마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말할 것을 것이다(17-19절).³⁷⁾

이러한 소송 과정에 대하여 이 구절들이 구약성경에서 “소송 진행 과정”이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본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이 새로운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취리히해설』은 열왕기하 24:8에 근거하여 여호야김이 이집트로 보낸 신하인 악불의 아들 엘라단이 ‘왕의 장인’이라고 규정짓는다. 이러한 명시적인 신분 확인도 새로운 내용이다.

넷째, 예레미야 27:1-15는,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 반-바빌로니아 동맹을 위하여 주변 소국가들의 사신들이 집결된 예루살렘 국제 회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본문에 대한 『취리히해설』의 해설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해(기원전 594년,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필자 주)

36) Ibid., 1135.

37)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088-1089.

에 바빌로니아의 임금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는 이미 점령된 블레셋 도시들을 제외한 옛 중동의 작은 나라들에게는 봉기를 감행할 수 있는 기회였다. 시드기야가 이웃한 나라들을 예루살렘으로 초대하여 모임을 가진 것도 다 이를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모여 있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스스로 목에 멍에를 걸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멍에 하나씩을 쥐어 주도록 명령하셨다. 그가 멍에를 걸고 나타나 바빌로니아가 약해진 틈을 노리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면 더 잘 이해되었을 것이다. 봉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이 여러 민족의 예언자임을 증명했다(46-51장 참고).³⁸⁾

이 당시 반-바빌로니아 연합 봉기는 실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정보 제시도 중요하고도 새로운 내용이다.

다섯째, 예레미야 30:1-31:40은 소위 ‘에브라임을 위한 위로의 소책자’로 불리는 부분이다. 『취리히해설』은 특히 이 단락이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학문적으로 연구되었음을 밝히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본문은 여러 단락을 하나로 짜 놓은 큰 본문이다. 더러는 이 본문을 ‘에브라임을 위한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 이 복합 본문의 핵심에는 7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크고 오래된 시가 있다. 이 시는 예레미야가 예언자 활동을 시작하던 때(기원전 609년 이전)의 것이다. 이 시는 문체가 훌륭하고 신학이 분명하고 예술적으로 뛰어나다.³⁹⁾

특히 이 부분이 예레미야의 초기 선포에 해당되는 메시지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연구의 결과에서 유래한 것이다.⁴⁰⁾

여섯째, 예레미야 34:8-22는 시드기야왕이 바빌로니아에 의해 포위당하여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노비를 해방시킨 사건을 다루고 있다. 『취리히해설』은 이 사건의 배경을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끼어드는 것이 묘사되는데, 한 사건이 끼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사건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기원전 588년) 일어났으며, 아마도 1-7절에 있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을 것이다. 임금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또는 군사적인 이유에서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엄

38)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36.

39) Ibid., 1143.

40) W.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차준희, 채홍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334.

속하게 계약을 맺고(15, 18절), 모든 노비를 자유롭게 할 것을 약속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이집트(애굽)의 구원 부대가 포위당한 사람들을 도우러 나타났고, 바빌로니아(바벨론) 군대가 잡시 물러났을 때, 노비의 주인들은 계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다시 잡아들였다.⁴¹⁾

일곱째, 예레미야 39:1-18은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다루고 있다. 『취리히해설』은 당시 바빌로니아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읍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름이 언급된 고관들 가운데 두세 명은 직책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내시장과 궁중 장관이다. 앞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령관(9절)도 고관들의 직책에 들어간다. 이 전통적인 직책의 뜻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다. 고관들은 예루살렘 성읍의 통치권을 넘겨받았다.⁴²⁾

『취리히해설』은 이어서 바빌로니아의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인지 사실과, 사반 가문의 그다라와 예레미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바빌로니아 임금의 명령으로 새로운 권력자들이 예레미야를 찾는다. 예언자는 바빌로니아의 왕궁에 알려져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찾아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를 성읍의 새로운 통치자인 그다라에게 넘겨주었다. 그다라의 집안은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는 집안 이었고, 예레미야에게 늘 호의적이었다.⁴³⁾

5. 논쟁이 되는 견해

『취리히해설』은 최근의 논의에서 논쟁이 되는 새로운 견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첫째, 예레미야의 출생 연도 문제이다. 『취리히해설』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말씀을 계시를 받은 기원전 627/626년(요시아 임금 13년)을 태어난 해로 주장한다.⁴⁴⁾ 결과적으로 『취리히해설』은 예레미야가 태어난 해부터

41)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50.

42) Ibid., 1158.

43) Ibid., 1158.

44) Ibid., 1089, 1090.

예언자로 활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먼저 요시야 임금 열셋째 해(기원전 627/626년)에 선포가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 그 때는 아마도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태어난 해, 곧 예언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던 때일 것이다(1:2-3 참고).⁴⁵⁾

『취리히해설』의 주장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태어나자마자 예언자로서 활동한다. 이러한 주장은 『취리히해설』의 예레미야 부분 해석자인 자이볼트(K. Seybold)의 개인적 견해이다.⁴⁶⁾ 예레미야 3:6과 36:2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요시야 시대에 전달되었음을 분명히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예레미야의 말도 ‘명백하게’ 요시야 시대에 속한 것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예레미야의 말 가운데 기원전 622년 요시야의 제의 개혁이라는, 요시야 시대 가장 중요한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는 점도 논란의 발화점이 된다.⁴⁷⁾

이로 인해 예레미야는 기원전 639년부터 609년까지의 요시야의 통치 시대 말엽에 가서야 비로소(K. Seybold) 혹은 여호아하스/살룸(609년 BC) 혹은 여호야김(608-598년 BC)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논제가 주장된다.⁴⁸⁾

그러나 기원전 627/626년을 출생 연도로 간주하는 자이볼트의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구약의 문서 예언자 가운데 출생 연도가 언급된 예언자는 단 한명도 없다. 소명의 시기만 언급될 뿐이다(사 6:1; 렘 1:2-3; 겔 1:1-3). 구약의 문서 예언자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만 관심의 대상이 된다. 문서 예언서는 한 예언자의 출생과 죽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문서 예언서의)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는 예언자의 경험, 행동이나 고난에 관하여 보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운명, 즉 한 성인의 생애가 중심 주제가 아니다.⁴⁹⁾

45) Ibid., 1132.

46) K. Seybold, *Der Prophet Jeremia: Leben und Werk*, Kohlhammer Urban-Taschenbücher 416 (Stuttgart: Kohlhammer, 1993), 46-47.

47) E. 쉐어, 『구약성경개론』, 이중환 역, 신학 텍스트 총서 1.4 (왜관: 분도출판사, 2012), 792; H.-C. 슈미트,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구약학 연구 안내서』, 차준희, 김정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515-516.

48) H.-C. 슈미트,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구약학 연구 안내서』, 516.

49) W.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252.

구약의 문서 예언서는 일반 위인전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위인전은 한 위인의 범상치 않는 출생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영웅적인 죽음에 관하여도 기록한다. 반면에 구약의 그 어떤 문서 예언서도 해당 예언자의 출생과 죽음이 기록된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십삼 년인 기원전 627/626년은 예언자가 태어난 해가 아니라, 예언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소명의 해’로 이해된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도 『취리히해설』과는 달리 기원전 627/627년을 예언 활동의 시작으로 보고, 609년을 아나돗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여 활동한 연대로 이해한다.

예레미야도 요시야의 개혁(왕하 22-23장 참조)을 겪었던 것이 틀림없다. 예레미야가 직접 그 개혁에 참여하였다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레미야는 활동 초기 몇 해 동안에는 아직 아나돗에서 살다가 주전 609년 요시야 임금이 비극적으로 죽은 뒤에야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것이다.⁵⁰⁾

슈미트(W. H. Schmidt)의 다음의 견해가 예레미야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 책의 진술(렘 1:2-3; 3:6; 25:3; 36:2)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 즉 기원전 627/6년 소명을 받았다. 그는 대략 기원전 650년경에 태어났고(참조, 렘 1:6) 기원전 585년까지 활동했다.⁵¹⁾

둘째, 예레미야의 초기 선포 본문 범위 결정의 문제이다. 예레미야의 초기 선포 사역은 요시야의 통치 기간, 즉 그의 소명 사건에서 요시야의 제의 개혁까지로서(기원전 약 627/626-622년), 주로 예레미야 1-6장에 반영되어 있으며, 절망적인 결말로 끝맺고 있다(렘 6:27-30).⁵²⁾ 그러나 『취리히해설』은 이러한 학계의 주된 흐름에 벗어나서 최근에 대두된 새로운 길을 걷는다.

예언자의 말들을 모아 놓은 둘째 모음집(4:3-6:30)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재난 예언이 들어 있다. 이는 기원전 609년부터 예레미야가 ‘북쪽으로부터 오는 적’이라는 주제 아래 선포했던 예언으로 보인다.⁵³⁾

50)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047.

51) W.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333.

52) Ibid., 334.

53)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095.

최근의 경향은 예레미야의 초기 선포 본문(렘 2:1-6:30)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첫 부분인 예레미야 2:1-4:4는 요시야 시대의 것으로 간주하고, 4:4-6:30은 보다 후대의 것으로 보는 경향으로 연구 방향이 흐르고 있다. 최근의 연구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있는 한스-크리스토프 슈미트(H.-C. Schmitt)의 진술도 이와 같은 점을 소개한다.

구약 연구자의 다수 견해는 요시야 시대(렘 3:6; 36:20)에 예레미야의 초기 선포가 행해졌음을 수용한다. 보통 예레미야 2-6장*은 초기 선포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레미야 4:4-6:30의 ‘북쪽으로부터 오는 적’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포는 여호야김의 시대(기원전 608-597년, 필자 주)나 바빌론 사람들과도 연관시킬 수 있다(참조. Albertz, Wanke). 이러한 경우 특히 예레미야 2:1-4:4*([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에 대한 고발)와 북왕국에 대한 구원선포들(특히 렘 30-31장*에서)은 예레미야의 초기 메시지로 이해될 수 있다.⁵⁴⁾

셋째, 예레미야의 탄원 본문 결정의 문제이다. 예레미야서에는 다른 예언서와 대비되는 독특한 현상이 집중적으로 기록된다. “이전의 예언서들에서는 아주 예외적이었던 화법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시대인들을 향한 예언자의 말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탄원 양식으로 나온다.”⁵⁵⁾ 소위 “예레미야의 고백”(The confession of Jeremiah) 혹은 “예레미야의 탄원”(The Lament of Jeremiah)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11:18-12:6; 15:10-21; 17:14-18; 18:18-23; 20:7-18의 다섯 개의 본문이 예레미야 고백 본문으로 선정된다.⁵⁶⁾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의 해설도 이러한 분류와 거의 비슷하다(렘 11:18-23; 12:1-6; 15:10, 15-21; 17:14-18; 18:18-23; 20:7-18).⁵⁷⁾ 그런데 『취리히해설』은 이 가운데 예레미야 18:18-23을 문제 삼는다.

54) H.-C. 슈미트,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구약학 연구 안내서』, 516.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 Albertz, “Jer 2-6 und die Frühzeitsverkündigung Jeremias”, I. Kottsieper und J. Wöhrle, hrg., *Geschichte und Theologie: Studien zur Exegese des AT und zu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3), 209-238; G. Wanke, *Jeremia: Teilband 1: Jer 1,1-25,14*, Zürcher Bibelkommentare: Altes Testament 20/1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33.

55) W.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339-340.

56) E. 쉐어, 『구약성경개론』, 796; H.-C. 슈미트,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구약학 연구 안내서』, 514.

57)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066.

본문(렘 18:18-23, 필자 주)이 앞선 4개의 이른바 고백처럼 예레미야에게서 나온 또 다른 고백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나중에 들어온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 뒤이어 나오는 탄식 기도는 시 35편; 109편; 140편과 비슷하다. ‘복수의 기도’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기도로 여겨진다. … 이는 나중 시대에 생긴, 적들에 대한 복수의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언어이지, 예언자 예레미야가 썼을 언어가 아니다. 시편을 겪는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할 것처럼 독자들이 읽도록, 나중에 누군가가 여기에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⁵⁸⁾

그러나 이 단락을 예레미야의 탄원 본문에서 제외하려는 자이볼트의 시도는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⁵⁹⁾ 예레미야 18:21-23의 “복수의 기도”같이 끔찍한 기도를 예언자 예레미야가 발설했을 리가 없다는 주장도 수용하기 어렵다.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에는 거의 빠짐없이 복수의 기도가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렘 12:3)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렘 15:15)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58)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121.

59) K. Seybold, *Der Prophet Jeremia: Leben und Werk*, 159.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렘 17:18)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렘 20:12)

6. 나가는 말

『취리히해설』과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의 예레미야서 부분의 해설을 비교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차이가 한 눈에 들어온다. 첫째, 안내 부분에서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서술체로만 기록된 반면, 『취리히해설』은 도식과 서술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취리히해설』의 도식 부분은 예레미야의 중심 내용을 핵심 단어로 도드라지게 하고 있어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둘째, 단락 구분에서도 차이점이 발견된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미시적 단락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 『취리히해설』은 거시적으로 단락을 구분하여, 전체 그림을 제시하고, 큰 그림에 비추어 각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이 각각의 나무를 보여 준다면, 『취리히해설』은 전체 숲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이다. 처음 독자의 입장에서 『취리히해설』의 전개가 본문의 열개와 그와 연결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취리히해설』은 전체적인 기술보다는 소단락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하는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는 다르게, 여러 장을 포괄하는 전체적인 개요를 제시한다는 점도 차별화된 점이다. 『취리히해설』은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이 미처 담아내지 못한 전반적인 개요와 전문적인 내용도 용감하게 소개하고 있다.

내용적인 차이도 드러난다. 첫째, 『취리히해설』에는 『독일성서공회판해설』에 비하여 역사적 배경이 적지 않게 추가되었다. 『취리히해설』은 예레미야 본문의 중요한 배경인 발생 연대와 활동 연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를 통하여 예레미야서를 구체적인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 『취리히해설』에는 최근의 지리학적이고 고고학적인 배경이 많이 추가되었다. 아나돗, 기랴트여아림, 기브온, 미스바 등 주요 성읍

에 대하여 지리학적인 정확한 위치와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라기스의 오스트라콘, 인장 자국, 예루살렘의 중문에 대한 발굴 정보, 메사 석비, 이슈타르 문, 바빌로니아의 썬기 문자 등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 결과들을 동원하여 예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고고학적으로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해설 성경>과 <취리히성경해설집> 사이에는 약 20년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비교하여 『취리히해설』의 최대 장점은 지난 20여 년간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에는 없고 『취리히해설』에서만 발견되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지 않다. 유다 멸망 때 시드기야의 측근들(바스홀과 스바냐 등)이 ‘친이집트파’였다는 언급, 예레미야가 예언자 교육을 받았다는 의견 제시, 예레미야 26장이 구약에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된 소송 진행 과정이라는 주장, 시드기야 시대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반-바빌로니아 연합 봉기의 무산 언급, ‘에브라임을 위한 위로의 소책자’(렘 30:1-31:40)가 초기 선포에 속한다는 연구 결과, 예루살렘 포위 중에 시도된 노비 해방 사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와 사반 가문과의 우호적 관계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취리히해설』이 최근의 연구를 반영한다고 해서 모든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취리히해설』은 논쟁이 되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취리히해설』은 예레미야의 출생 연도를 기원전 627/626년으로 주장한다. 이는 학계에서 소수의 입장이다. 『취리히해설』은 전통적으로 예레미야의 초기(주전 627/626-622년) 선포 본문으로 분류된 2:1-6:30 가운데 뒷부분인 4:4-6:30을 보다 후대인 기원전 609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최근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취리히해설』은 예레미야의 탄원 본문 가운데 18:18-23을 제외한다. 이 또한 독특한 입장이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은 문자주의적 성서해석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역사비평적 성서해석을 수용한 획기적인 성서해설이다. 『취리히해설』은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업적이다. 『취리히해설』은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보다 더 학문적으로 역사비평적 성서해석(본문비평, 문헌비평, 편집비평)을 심도 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 점에서 『취리히해설』의 출현은 한국교회 성서 이해에 커다란 도전이다. 이 정도까지도 소화하고 세계적인 성서해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계적 수준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지. 이는 개별적인 독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독일성서공회판해설』도 그러했듯이, 『취리히해설』도 설교

자의 비밀 병기라는 사실이다. 『취리히해설』은 설교자들이 시간이 부족할 때 본문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는 양질의 단권 주석이다. 한국교회는 성서 이해에 필수적인 안내자인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더불어 『취리히해설』이라는 또 하나의 귀한 선물을 받게 된다. 앞으로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취리히해설』을 통해 자신의 성서 이해와 설교를 걸러 본다면 더욱 의심할 데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예레미야, 비교,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Jeremiah, Compariso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Study Bible*, *Good News Study Bible*,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투고 일자: 2021년 7월 27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3.
-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 김구원, 칩 하디, 『쉬운 구약 개론』, 서울: 홍성사, 2020.
- 김창락,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56-68.
-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7-40.
- 박동현, 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Konrad Schmid and Matthias Krieg, eds.,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1)”, 『성경원문연구』 40 (2017), 265-291.
- 슈미트, H.-C.,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구약학 연구 안내서』, 차준희, 김정훈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Schmitt, H.-C., *Arbeitsbuch zum Alten Testament: Grundzüge der Geschichte Israels und der alttestamentlichen Schrift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1.
- 슈미트, W. H., 『구약성서 입문』, 차준희, 채홍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Schmidt, W. H.,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 왕대일, “『독일성서공회판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구약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9 (2001), 41-55.
- 임미영, 『고고학으로 읽는 성경』, 고대 근동 시리즈 14, 서울: CLC, 2016.
- 첵어, E., 『구약성경개론』, 이종한 역, 신학 텍스트 총서 1.4, 왜관: 분도출판사, 2012; Zenger, E.,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4.
- 클레멘츠, R. E., 『예레미야』, 김희권 역,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Clements, R. E., *Jeremiah*, Interpretation: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8.
- 프리처드, J. B. 편, 『고대 근동 문학 선집』 강승일 외 역, 고대 근동 시리즈 13; 서울: CLC, 2016; Pritchard, J. B., ed., *The Ancient Near East: An Anthology of Texts & Pictures*,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Albertz, R., “Jer 2-6 und die Frühzeitsverkündigung Jeremias”, I. Kottsieper und J. Wöhrle, hrsg., *Geschichte und Theologie: Studien zur Exegese des AT und zur Religionsgeschichte Israels*,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3, 209-238.
- Avigad, N., *Corpus of West Semitic Stamp Seals* (revised and completed by B. Sass), Jerusalem: The Israel Academy of Sciences and Humanities; Israel

Exploration Society;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97.

Seybold, K., *Der Prophet Jeremia: Leben und Werk*, Kohlhammer Urban-Taschenbücher 416, Stuttgart: Kohlhammer, 1993.

Stipp, H.-J., *Jeremia 25-52*, Handbuch zum Alten Testament I/12,2, Tübingen: Mohr Siebeck, 2019.

Uehlinger, C., “Spurensicherung: alte und neue Siegel und Bullen und das Problem ihrer historischen Kontextualisierung”, S. Lubs, u. a., hrsg., *Behutsames Lesen: Alttestamentliche Exegese im interdisziplinären Methodendiskurs: Christof Hardmeier zum 65. Geburtstag*, ABG 28,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07, 89-137.

Wanke, G., *Jeremia: Teilband 1: Jer 1,1-25,14*, Zürcher Bibelkommentare: Altes Testament 20/1,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95.

<Abstract>

**A Comparison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Study Bible*
with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Focused on the Book of Jeremiah**

Jun Hee Cha
(Hansei University)

This essay compares and analyzes of the Book of Jeremiah in *The NKRV Study Bible; Stuttgarter Erklärungsbibel* (hereinafter Stuttgart) and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hereinafter Zürich).

First of all, Stuttgart and Zürich are distinguishable in form and contents. Formal differences appear in the introduction part, paragraph division, and general outline. Differences in content are found in addition to historical, archaeological settings and the other additional contents. Furthermore, Zürich is emerged a number of controversial arguments considerably.

The formal difference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introduction part, Stuttgart is written only in descriptive form, while Zürich is occupied by schematic and descriptive forms. Second, in the division of paragraphs, Stuttgart subdivided each content microscopically whereas Zürich macroscopically divided sections and presented the whole picture, and then commented each content in light of the big picture. Third, Stuttgart is focused more on the content of subdivided paragraphs than Zürich, which puts more emphasis on the general overview of inclusive several chapters.

The content differences are as follows: First, Zürich is added many of historical settings comparatively. Second, Zürich supplements a number of recent geographical and archaeological settings. Stuttgart is published in Germany in 1992; Zürich in Switzerland in 2010, reflecting research results over the past two decades. It has many controversial arguments, however, in the introducing and reflecting of recent research.

Stuttgart was translated in Korean in 1997, and *The Good News Study Bible* in 2001, and both are ground-breaking Bible commentaries which presented historical-critical Bible interpretation to Korea, where it has been forming of dominated literalism interpretation. Zürich resolutely accommodated and argued

for the recent historical-critical interpretation, which is rather taking a step forward to the former two bible interpretation in earnest. The contents are to be a stumbling block for some or a stepping stone for others. The superior one-volume commentary, Zürich is not only a daunting challenge but also an outstanding achievement.